

# 상장회사의 2019년 사업연도분 외부회계감사시, 회사와 감사인 간의 회계처리의견 충돌과 분쟁 요인들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2020년부터 상장감사인 지정제의 본격 적용으로 기존의 회계감사인이 변경되고, 감사인 등록제로 인해 등록하지 않은 145개의 중소회계법인이 담당하던 상장사 500여개의 감사인이 바뀌게 됨.
2. 이로 인해 기존감사인과 앞으로 변경담당(=지정제+소형회계법인분의 중대형 회계법인 귀속분) 감사인 간에 상장회사 회계처리 쟁점에 대한 의견차이 발생시 과거연도 재무제표의 수정사항 발생 가능
3. 기존감사인의 엄정한 회계판단과 감사실행은 2018년분부터 시행되었고, 특히 올해인 2019년분 외감에서는 마지막 수정 기회이므로 2020년 2월, 3월 감사에서 감사인과 피감기업간의 의견대립이 많이 분출되는 상황임.
4. 수정사항 발생되면 과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부실감사 의혹으로 비화되고 금융당국의 정밀감리 대상으로 착안될 수 있음(현재 금융당국은 이러한 의견차이 최소화 노력중이며, 설사 의견 차이로 과거 재무제표가 수정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문제가 아닌 한 감리 착안하지 않겠다는 방침임).
5. 피감회사, 현 감사인, 다음 감사인 간에 제기될 민감한 문제의 실제 사례 몇 가지
  - ① 회사 소유 유가증권 중 종속회사(장부가 평가)와 관계회사(시가평가)의 실질구분(지분과 이사통제 등) : 삼성바이오 사태 등의 교훈
  - ② 건설 · 조선회사의 업무수행 실적 기성고에 따른 수익인식 방법(진행기준과 완성이

준) : 대우조선해양의 교훈

- ③ 해외수출, 국외 자회사 통한 매출과 매출채권 진실성 문제 및 현금흐름과의 현격한 차이 : 모뉴엘 사건의 교훈
- ④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특수관계대여금 등과 당기순이익, 이월이익 잉여금 등의 과대 반영 : 많은 기업에 빈발함.
- ⑤ 경상적 연구개발비용을 개발자산, 영업권 · 산업재산권 등의 자산가액으로 반영, 손실 축소 : 바이오 신약개발 회사 등에 많음.
- ⑥ 관계회사 유가증권가액과 관계회사 차입금이 함께 늘어나는 재무상태표의 허위자산, 부채 등 : 단기간에 급성장한 IT계열 지주회사가 같은 돈으로 자회사 자본금으로 넣고 빼기를 반복해서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규모가 급성장하는 듯한 위장거래임.
- ⑦ 외부자본 조달 후 자회사 유가증권 거래 취득후 거래평가손실 반영 : 무자본 인수합병 (M&A) 거래의 대표적 사례임.
- ⑧ 잉여금 누적회사인데 거래의 특수관계 단기대여금 증가는 배당소득처분하면 종합소득 세금부담되므로 회사 공금 유용계정임 : 매년 배당처리해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것이 원칙

6.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의 외부질의와 해석기관 : 한국회계기준원임.

회계기준원(검토위원에 금감원 등 금융당국 참여) : 원칙적으로 각 기업과 각 현장 감사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며,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회계기준원이 합리적 해석의견을 낼 수 밖에 없음.